平壤 平川里 出土 金銅半跏思惟像의 造成年代에 關하여

金 良 善

一. 出土 및 保存의 經緯
二. 造成年代의 考定
1. 同 遺跡에서 出土된 諸他의 資料에 依한 年代考定
2. 造像樣式 및 그 手法에 依한 年代考定

一. 出土 및 保存의 經緯

平壤 平川里 出土 金銅半跏思惟像은 서울特別市 金東鉉氏의 所藏으로서 1963年 國寶로 指定된 바 있는 現存 高句麗 佛像中 最古 最優의 作品이다. 그것은 特히 半跏像인데서 더욱 우리의 興味를 끈다. 本像은 昨年 國寶로 指定 되면서 비로소 世上에 나타나서 우리의 注意를 크게 끌고 있거니와 實은 지금으로 부터 24年前인 1940年에 平壤 平川里에서 出土 되었고 그때로 부터 지금 까지 오랜 歲月 金氏의 품안에 保存되어 오는 동안 여러가지 에피소一드를 남기었다.

本像은 高 約5寸7分의 小形의 半跏思惟像으로서 몸을 알맞게 앞으로 굽혔으며 面相은 豐滿한 편인데 火傷을 입은 탓인지 線은 많이 마멸 되었다. 그러나 윤곽은 뚜렷하여 實人物을 보는듯한 느낌을 준다. 그와 反對로 가슴과 허리는 裸身임에 不拘하고 지나치게 가늘고 길어서 造形美로서는 異色的인것 이지마는 肉體美는 缺했다. 蓮花座위에 놓여진 둥근 걸상 위에 바른 다리를 왼편 무릎 위에 도사려 얹고 걸쳐 앉았으며 왼손은 바른 발 위에 얹어서 얹었으며 바른 손은 구부려서 바른 뺨에 사뿐히 대었을것이나 下腕以下가 전부 缺失 되었기 때문에 그 가련한 포一즈는 볼길이 없다. 腰帶로 묶여진 裳衣는 後面에서는 放射線形으로, 左右側에서는 直線形으로 깊게 주름잡혀 느려졌으며, 前面에서는 깊고 둥글게 첩놓인 圖式化된 褶襞으로 가득찬 옷자락이 臺座 위까지 느려졌다. 그리고 花座와 솔다리로 장식된 멋진 腰帶가 臺座까지 츠렁 츠렁 느려졌다. 六朝式 衣端處理法을 그대로 받은것이지마는 그 簡素하면서도 힘차고 調和된 衣紋은 高句麗的 特色을 잘 나타낸다. 머리에는 아무 장식 없는 山字形 寶冠을 썼으며 頸背에는 光背를 달았던 굵직한 고다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像身에 比하여 較大한것은 本像의 光背가 小形의 寶珠形 頭光이 아니고 大形의 半身光이었음을 示唆해 준다. 목에는 아무 장식이 없으나 두 팔목에는 굵직한 팔목거리를 꼈다. 걸상과 왼발을 받들고 있는 臺座는 앞이 若干 좁아진 타원형 二重蓮座인데 下蓮座는 굵직한 單瓣 覆蓮으로, 上蓮座는 單瓣仰蓮으로 되었다. 이런 式의 蓮座는 보기 드문것으로 亦是 地方的 特色과 時代的 特徵을 잘 나타내고 있다.

本像은 아직 4分之1 정도의 鍍金이 남아 있으나 銹化의 程度가 甚하기때문에 火傷을 입은것 같은 感이 든다. 더구나 右腕의 下腕以下가 부러져 없어진것은 本像이 어떤 不意의 災害를 當하여 地下에 埋沒되었던 것으로 推想된다. 西紀 668年 唐羅兵에 平壤이 陷落 될 때에 이러한 慘禍를 입은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本像이 出土된 平壤驛 西南에 있는 平川里의 土質은 강흙이 섞인 매토이어서 比較的 물이 잘 스며드는 곳이기 때문에 金屬의 銹化가 容易한것만은 事實이다. 그런데 同遺跡에서 出土된 다른 遺物들을 보면 불을 맞은 흔적이 현져한 것이(1) 있는가 하면 金色이 찬연하여 불맞은 흔적이 全然 없는(2) 것도 있

(1) 1946年 同 遺跡出土의 永康七年銘 金銅光背는 불을 맞아 그 下端이 뒤틀어졌으므로 銘文의 判讀이 不可能한 個所가

으므로 本像의 火傷 與否에 對하여는 輕輕히 斷案을 내릴 수 없다.

叙上의 特徵을 가진 本像의 出土 및 保存의 經緯는 다음과 같다. (以下의 文은 本像 所藏者 金東鉉氏와 그의 妻 尹女史가 1947年·64年 兩次에 걸쳐서 筆者에게 直接 들려준 이야기를 要約한것임) 金氏가 平壤 大和町 柴田鈴三의 商店의 一部를 비러서 貨泉堂이란 骨董店을 經營하고 있던 1940年 5月 어떤날 27·8歲 되어보이는 勞動者 한 사람이 나타나서 樂浪 및 高句麗時代 瓦當 數枚를 내어보이면서 平川里 兵器廠 擴張工事中 發見된것임을 밝힘으로 金氏는 큰 興味를 가지고 그것을 買收한 후에 무엇이든지 出土되는대로 가져다 줄것을 다짐했다. 數日後에 그 사람이 다시 同地 出土의 瓦當 數十枚를 가져 왔는데 그 中에는 大晋元康年銘이 드러 있는 樂浪時代 드림새 기와의 破片이 있었고, 杏仁形蓮瓣 사이에 華紋을 그린 赤褐色의 高句麗 瓦當과 벽돌과 같은 모양이면서 구부러져서 扇形을 이룬 赤褐色의 塼築이 있었다. 그런데 同塼은 구부러진 內側에 고사리紋을 浮彫한 것으로서 同 遺跡에서만 出土된 樂浪時代 特有의 塼이다. 同 勞動者는 古瓦破片이 돈이 되는데 크게 滋味를 부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若干의 돈을 나눠주면서 出土遺物에 關心을 기우려 蒐集해 줄것을 부탁하고 다시 數日間 工事를 계속하던中 同 勞動者는 한곳에서 扇形塼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음을 發見하고 이상히 여겨 그것을 헤쳐 가면서 깊은 곳으로 파 들어가다가 若干의 金빛이 나는 쇠덩어리 같은것이 나타남으로 同僚들의 눈을 피해 가면서 그것을 두손으로 잡아 빼어 가지고 塼들과 함께 두었다가 休息 시간에 몰래 빠져서 그것을 가지고 貨泉堂으로 왔다. 金氏는 그것이 秀作의 半跏像 임에 놀라는 同時에 頭背에 光背가 달려 있던 고다리가 있고 또한 同像의 어깨로 부터 後半身에 덩치로 붙은 흙 表面에 굵고 억센 光背의 紋樣이 박혀 있음을 보고 光背의 行方을 물은즉 그는 佛像에 對한 知識이 全然 없었으므로 그것에 注意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同時에 萬一 그것이 꼭 必要하다면 지금 곧 돌아가서 그곳을 더 파볼 것을 提言했다. 그러나 金氏의 所見에 이와 같은 큰 物件이 發見 되었다는 所聞이 밖에 퍼지면 모든것은 虛事로 돌아갈것 같으므로 그에게 大金을 주면서 다시는 工事場으로 돌아가지 말고 먼곳으로 가서 몇해 지난후에 돌아 오든지 或은 그곳에서 아주 살든지 해서 佛像에 對한 말이 外部에 全然 알려지지 않도록 할것을 責任지웠다. 大金을 받은 그는 意外의 橫財에 너무 기뻐서 金氏의 말대로 그길로 高飛遠走했다. 數個月 지나도 아무 雜音이 들려 오지 않으므로 적이 安心한 金氏는 平壤의 大蒐集家이며 信義가 매우 두터운 親友 黃澳氏에게 同像을 보였다. 兩人은 한가지로 光背의 缺失을 유감 되게 생각한 나머지 黃氏는 同 遺跡의 再調査를 決心하고 그 實行에 매우 애써 보았으나 때마침 中日戰爭中으로 軍事基地에 對한 戒嚴이 甚하여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때로 부터 約 2年 후에 平壤의 大資產家요 蒐集家이며 또한 自己 商店의 主人인 日人 柴田鈴三에게 秘密保障을 條件으로 同佛像을 보였다. 그러나 柴田는 自己의 蒐集顧問인 平壤博物館長 小泉顯夫에게 이 事實을 말했으므로 小泉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同 佛像의 감상을 간청해 왔다. 그러나 金氏는 그가 官吏인 때문에 매우 親한 사이면서도 解放 될때까지 不應해 왔다. 解放이 되자 小泉은 博物館에서 떠나서 柴田집에에 임시 우거하고 있으면서 金氏에게 『인제는 韓國이 獨立이 되어 모든 物件을 당신의 마음대로 하게 되었으니 내가 恒常 보고 싶어 하던 半跏像을 한번 보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同 佛像이 咸鏡道 金氏妻家에 소개해둔채 있었으므로 不得已 應치 못하였다. 同 佛像을 咸鏡道로 옮겨 가기 直前에 金氏와 同事關係를 가지고 있던 서울에 사는 稻垣信義라는 日人 骨董商人에게 한번 보인 일이 있을 뿐으로, 日人들의 온갖 위협과 압력을 받으면서도 金氏는 그것을 前記 三人以外의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解放 翌年 身邊의 위험을 느낀 金氏는 同 佛像을 품에 숨겨 가지고 海州로 와서 船便으로 越南하여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 平壤의 大資產家로서 서울에 와 있는 尹장렴氏에게 同 佛像을 맡겨 두었다. 同年 秋에 서울의 大蒐集家 松穩 李秉直氏와 金찬영 兩氏가 同 佛像을 감상하였고, 同年 겨울에 筆者도 감상하였다.

적지 않다. (朝鮮學報 第31輯 P. 56 梅原論文 參照)

(2) 1946年 同 遺蹟 出土의 金銅天人像金具는 全面에 鍍金色이 찬란하여 銹化된 個所가 全然 없다. (北韓 美術圖錄 圖版 第27 參照)

1947年 10月에 平壤 博物館長 黃澳氏의 長男 炳寬君이 越南하여 金氏를 찾아와서 半跏像의 光背가 平川里에서 出土 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金氏는 그말을 듣고 그事實을 確認코자 自己의 妻 尹氏를 平壤으로 보내었다. 尹女史가 平壤 博物館을 찾았을 때에는 同 光背와 臺座가 同 博物館 西南室 平臺陳列欌 속에 나란히 陳列 되어 있었고 臺座의 上層 表面에 本像의 底面과 흡사한 銅銹가 남아 있음을 確認하였다. 그리고 黃澳氏로 부터 同 臺座와 光背는 本像의 그것들임에 틀림없다는 確言을 들었다. 尹女史는 光背의 後面에 銘文이 들어 있음을 實見하였으나 漢文에 익지 못한 탓으로 銘文의 內容은 알지 못한채 총총히 서울로 도라왔다. 尹女史의 報告를 들은 筆者는 하루 速히 이에 關한 北韓側의 報告書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6·25의 共產侵略이 일어나자 金氏는 아내는 同伴못하면서도 同 佛像은 품에 품고 釜山으로 避難하였다. 釜山에서 生活費가 없어서 부두노동을 하면서도 그 무거운 佛像은 한시간도 몸에서 내어놓은 일이 없었다. 9·28 수복에 다시 서울로 올라 왔다가 1·4 후퇴가 시작되자 그는 다시 同 佛像을 품에 안고 松隱先生과 함께 釜山으로 避難하여 다시 서울에 올라올때까지 數年間 港都旅館에 머물었다. 同 旅館에서 當時 文化財保存委員인 孫在馨氏에게 同 佛像을 보였으며 孫氏의 傳言으로 國立博物館長 等 여러 사람들이 同 佛像의 所在를 알았으나 金氏의 고집으로 아무도 그것을 볼 수는 없었다.

1960年頃 金氏는 自身의 健康狀態에 異常이 오기 始作하자 心境의 變化를 이르켜 所藏品中의 一部를 公開하여 國寶指定을 받게 되었다. 本像은 昨年에 비로소 文化財保存委員에게 公開되여 곧 國寶로 指定되었다.

二. 造成年代의 考定

本像의 年代考定에 있어서는 專門家 사이에 若干의 異見이 있으나 그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로 생각된다. 筆者는 두가지 方法으로 本像의 年代考定을 試해 보고자 한다. 그 하나는 同 遺跡에서 出土된 諸他의 資料에 依한 年代考定이오 다른 하나는 造像樣式 및 그 手法에 依한 年代考定이다.

1. 同 遺跡에서 出土된 諸他의 資料에 依한 年代考定

平川里 廢寺址에서 出土된 遺物中에 本像의 年代考定에 有關한 것으로는 大晋元康年銘의 樂浪瓦當, 樂浪肅專, 蓮華紋高句麗瓦當, 金銅四角三層臺座, 永康七年銘金銅光背, 金銅天人像金具 等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學術的인 發掘에 依한것이 아니었고 또한 같은 때에 出土된것도 아니므로 一括遺物로 取扱키 困難한 點도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同 遺跡이 廢寺址임에 틀림 없으므로 相當히 넓은 地域을 차지하는 遺跡地區가 된다는것을 생각한다면 비록 그것들이 同一場所에서 出土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同一遺跡地區에서 出土되었음은 確實하므로 一括遺物로 認定해도 무방할것으로 생각된다. 그것들을 一括遺物로 생각할 때에 本像의 年代考定에 好資料가 되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中에서도 臺座와 光背는 本像의 絕對年代를 말해주는 가장 좋은 資料가 된다.

傳言에 依하면 1947年에 平壤市內 某中學校 學生들이 平川里 兵器廠에서 勤勞奉仕 作業中에 臺座와 光背와 佛具 等을 發見하여 同校의 所藏으로 했었는데 그 事實이 平壤 博物館長에게 알려진바 되어 그것들은 곧 同 博物館에 收藏 되었다. 同 博物館長 黃澳氏는 解放前 부터 平川里 遺跡에 큰 關心을 가져오던 터이므로 곧 現地를 踏査하고 調査한 結果 同 遺物들의 出土된 곳은 1940年 本像의 出土된 地區와 近接한 곳임을 認定케 되었으며, 本像을 여러번 實見한바 있는 그는 非常한 關心을 가지고 同 臺座와 光背를 實測해 본 結果 本像의 그것들임에 틀림 없다고 생각 되어 『金氏의 半跏思惟像의 光背가 出土되었다』고 發表하였다.

尹女史가 平壤 博物館에서 實見한 臺座의 形態를 그녀의 男便인 金氏에게 이야기한대로 보면 一邊의 길이 約 4寸5分의 3段으로 된 高 約 1寸5分의 方形臺인데 下段 正面에 十字形紋이 透彫되었다. 그리고 臺座 最上層 表面에 本像의 蓮華座의 底面의 모양과 흡사한 銅銹가 남아 있다.

그런데 今年 봄에 金氏는 夫人의 報告에 依한 同 臺座의 見取圖를 그려서 本像의 寫眞과 함께 日本 天

理大學 梅原博士에게 보내었다. 梅原博士는 지난 4月 朝鮮學報 第31輯에 本像을 紹介하면서 『文化遺産』 1962年 第6號 所載의 同 臺座에 對한 報告書의 一節을 引用하여 尹女史가 平壤 博物館에서 實見한 臺座와 『文化遺産』에 發表된 그것과를 同一視하는 見解를 取하였다. 同報告書의 一節과 梅原博士의 見解와는 다음과 같다.

『比較的 完成形에 가까운 이 中型의 것은 横 13糎, 縦 9.8糎, 高 3.5糎의 四脚을 가진 机狀으로서 그 윗 表面의 中心에는 적은 臺가 붙어 있다. 臺는 다시 三段의 層階로 되었고 第一上段의 周邊에는 蓮花形을 浮刻했다. 一段의 高는 2.3糎 가량인데 모두 매우 엷은 銅板으로 되었고 表面에 金箔을 발랐다. 臺의 側面에 簡單한 透彫를 한것과 板 그대로 있는것과의 두 種類가 있다』(3)

『記載者는 다른 大小의 많은 破片과 아울러 本來 塔形을 形成했던 部分인양 말하였으나 위의 解說을 본다면 圖版은 없지마는 도리어 臺座로 보는것이 좋을 것이며 그것이 尹女史의 提供한 略圖 바로 그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本像의 出土地의 所傳이 確實할 뿐 아니라 그것을 通하여 一見 遊離된 本像의 背景과 그 지닌바 意味가 알려진다』(4)

尹女史의 報告에 依한 同 臺座는 無脚 方形臺이며 그것은 또한 三層으로서 各層의 長廣의 差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文化遺産』에 記載된 臺座는 四脚을 가진 机狀下臺 上表面中心에 下臺 보다 훨씬 적은 三層의 臺가 덥놓여 있다. 이런 程度의 差異를 가지고 尹女史의 實見한 臺座와 『文化遺産』에 發表된 台座와를 別個의 것으로 생각 할 수는 없다. 尹女史의 말과 같이 恐怖와 흥분에 쌓여서 보았기 때문에 기억에 희미한 점도 없지 않을것이다. 何如間 『文化遺産』의 比較的 자세한 報告로 말미암아 同 臺座는 六朝 中期의 金銅佛臺座의 標式的 樣式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即 四脚을 가진것과 下臺의 側面에 透彫를 施한것과 層階周邊에 蓮花形을 浮刻한 것들은 六朝 中期의 金銅佛 臺座에서 흔히 보여지는 樣式이다. 그런데 同 臺座가 本像의 臺座로 認定 될 수 있는 點은 前述한바와 같이 臺座 最上層 上表面에 本像의 앉았던 자리가 確實히 나타나 있는 때문이다. 이 자죽에 對하여서는 平壤 博物館長 黃澐氏에 依하여 가장 처음으로 確認되었고 다음에 尹女史에 依하여 再確認된바 있으며, 梅原博士도 그 자죽을 根據로 하여 尹女史가 平壤 博物館에서 實見한 臺座와 『文化遺産』 發表의 臺座와를 同一物로 보는 同時에 同 臺座가 本像의 臺座임을 確認하였다. 筆者 亦是 黃澐氏의 證言에 信任을 둔다면 梅原博士와 같은 見解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同 臺座의 年代는 五世紀 前半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文化遺産』誌의 記錄을 보면 同 遺跡에서 出土된 蓋座形 金具는 하나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同 記錄에 『比較的 完形에 가까운 이 中型의 것』이란 말은 中型의 것 以外에 비록 破片들이 나마 大型 및 小型의 臺座形 金具로 認定되는 것들이 伴出 되었음을 暗示해 준다. 참으로 同 遺跡에서 大·中·小의 臺座形 金具의 破片들이 함께 出土 되었다면 『比較的 完形에 가까운 이 中型의 것』을 本像의 臺座로 보는데는 적지 않은 難點이 있다. 그것은 中型의 것을 佛像의 臺座로 보는 때에는 大型 및 小型의 臺座形 金具들도 佛像의 臺座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同 遺跡에서 다른 佛像들도 出土 되었어야 할터인데 解放 前後를 通하여 本像 以外에 出土 된것이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것들을 實見하기前에는 尹女史가 實見한 臺座와 『文化遺産』 發表의 臺座가 同一物인지 아닌지도 斷定키 困難하다. 尹女史의 記憶을 살려서 그려 본 同臺座의 見取圖를 實物 그대로라 보면 平壤 博物館에 陳列 되어 있는 臺座는 『文化遺産』에 發表된 臺座와는 別個의 것이 되어야 하며 그런 無脚方形의 臺座라면 그 年代는 4世紀末까지 올라 갈 수 있지 않을가 생각 된다. 何如間 그 어느것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本像의 臺座 됨에 틀림 없다면 그 年代는 5世紀 前半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따라서 本像의 年代도 그렇게 考定되어야 할것이다.

同 遺跡에서 同 臺座와 함께 永康七年銘의 金銅舟形光背가 出土 되었다. 同 臺座를 本像의 臺座로 認定한다면 同一 遺跡에서 出土된 光背 亦是 本像의 光背로 認定 하는것이 妥當 할것이다. 同 光背가 本像의 出土된 바로 그곳에서 出土된 與否는 그리 確實치 않으나, 黃澐氏의 傳言과 金氏의 證言에 依하면 同一

(3) 梅原 『平壤 平川里 出土의 金銅半跏思惟像』 朝鮮學報 第31輯 p. 56
(4) 梅原 同上書 p. 56

遺跡에서 出土된 것만은 確實하므로 筆者는 同 光背를 本像의 光背로 認定하고 本像의 年代考定을 進行코자 한다.

同 光背의 出土狀況 및 形態와 銘文에 對하여는 "朝鮮學報"에 紹介된 梅原博士의 論文의 一節을 그대로 옮겨 본다

『本思惟像의 遺存한 같은 平川里 遺跡에서 1947年에 臺座類와 함께 發見된 金銅의 光背가 같은 佛像關係의 새로운 한 知見임을 附記한다.

이 光背는 아직 鮮明한 寫眞을 얻지 못하였으나 高 21糎, 下幅 14糎의 舟形을 한것으로서 下邊은 불맞았고 그 頭光은 蓮花紋을 中心에 두고 忍冬華紋을 配置 한것인데 바로 中國六朝 前半의 한 標式的인 것이며 일직 黃海道 谷山郡에서 發見된 金銅三尊佛의 光背와 相似하다. 背面의 刻銘은 『文化遺產』에 記載된 釋讀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

永康七年歲次甲……
爲亡母造彌勒尊像……
福願令亡者□□□……
玆民三會
亡初悟□主□□竟□□
□若有罪右類時消滅……
□喜者等同止願(5)

(□內의 文字는 判讀한 것, ……는 滅失된 것)』

그런데 梅原博士는 同 光背를 『本思惟像의 遺存한 같은 平川里 遺跡에서 1947年에 臺座와 함께 發見된 것』(6)으로 指摘하면서도 『永康은 東晋의 紀年으로서 그 七年은 西紀 396年에 該當된다. 따라서 이 光背는 韓國에서는 上記의 思惟像에 光背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傳聞되는데 그것과는 別個의 中國 六朝 初半의 것으로서 同 遺跡에서 出土 되었음은 한 重要한 新知見이 되는바다』(7) 라고 말하여 同 光背는 六朝時代 初半期에 中國에서 製作된것으로서 同 遺跡에서 出土된것으로 認定하였다.

그러나 筆者가 同 光背를 本像의 그것으로 생각해 보려는 理由는 本像의 頭背에 고다리가 남아 있어서 光背가 있었던것으로 認定 되는 때문만은 아니다. 도리어 그것이 同一 遺跡에서 出土된 때문이며 所藏者 金氏의 證言에 信을 둔다면 本像의 光背는 틀림 없이 舟形半身光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本像이 全體的으로 불을 맞은듯한 感이 드는것과 同光背의 下邊이 불을 맞은 때문에 文字의 判讀이 困難한것과는 兩者가 同一體였기 때문에 같은 災害를 當하였으리라는 推想을 가져 볼 수 있게 한다.

梅原博士는 그의 論文에서 『그리고 조금 앞으로 수그린 思惟像에 알 맞는 頭背에는 本來 寶珠形光背를 부쳤던것을 나타내어 주는 突起가 있다』(8) 『그리고 이것에 寶珠形의 光背가 붙은 本來의 像形으로는 日本 大和 中宮寺의 木彫의 尊像과도 서로 닮은 곳이 있음이 推察된다』(9)라고 말하여 本像의 光背는 어디까지 든지 寶珠形頭光이었을 것으로 斷定했다. 그러나 金氏의 證言에 依하면 本像의 發見 當初에 本像의 등과 뒷 허리에 붙은 흙덩어리에 光背의 紋樣이 박혀 있었다. 뒷허리 까지 光背의 紋樣이 있었다면 그것은 舟形 半身 光背였음이 確實하며 本光背는 擧身光 보다도 半身光으로 보는 便이 妥當하겠으므로 그것은 더욱 本像의 光背로 推想된다. 半跏思惟像의 光背로서는 寶珠形頭光이 絕對 多數인것이 事實이나 舟形半身光의 例도(10) 적지않게 있다. 本光背를 本像의 光背로 본다면 頭背의 고다리는 頭光의 蓮花紋의

(5) 梅原 同 上書 pp. 56~57
(6) 梅原 同 上書 p. 56
(7) 梅原 同 上書 p. 57
(8) 梅原 同 上書 p. 54
(9) 梅原 同 上書 p. 54
(10) 揷圖 I 參照

插圖 I. 西安出土半身光背
半跏思惟像

中央을 꿰뚫고 나가야 할것이며 光背의 下端은 바로 방석 위에 닿게 될것이다.

本光背를 本像의 光背로 보는 때에는 本像의 製作 年代는 西紀 418年이 된다. 그런데 梅原氏는 永康七年을 西紀 396年으로 指摘하였는데 396年은 後燕의 永康元年에 該當된다. 光背의 銘文이 確實히 永康 七年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西秦의 永康이어야 하며 同 七年은 西紀 418年 即 長壽王 6年에 該當 된다. 梅原氏가 永康 七年을 西紀 396年에 該當시킨데는 어떤 딴 理由가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銘文에 나타나는 歲次의 干支가 틀리기는 매 마찬가지다. 銘文의 歲次는 甲干으로 되어 있는데 396年은 丙申年이며 418年은 戊午年이기 때문이다. 光背의 下邊이 불을 맞은 때문에 判讀의 困難한 文字가 적지 않게 있는데 干支의 文字가 亦是 不明하여 甲干 만을 간신히 알아 볼 수 있는 모양이고 支는 全然 알 수 없어서 밝히지 못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甲干도 잘못 判讀 된것인지 알 수 없다.

佛敎의 高句麗 傳來의 歷史的 記錄은 三國史記에 初見되는 바로서 小獸林王 二年 即 西紀 372年에 前秦王 符堅이 僧 順道를 高句麗에 보내어 처음으로 佛像과 經文을 傳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本像은 佛敎 傳來 46年 만에 製作 된것이 된다. 佛敎 傳來 初期에 어떻게 이런 優秀한 作品이 나올수 있겠느냐고 疑問을 가질 사람도 없지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高句麗에 있어서 佛敎의 發展은 매우 急速度로 進展 되었다. 三國史記에 依하면 小獸林王 五年(375)에 肖門寺와 伊弗蘭寺가 創建되었고 故國壤王 九年(392)에는 佛法弘通의 敎가 나려드디어 一般人民이 佛法을 崇信하며 死者와 生者를 爲한 求福祈願의 風이 盛行 되었으며 廣開土王 二年(393)에는 平壤에 九寺가 創建되어 造佛 供養의 風이 盛行되었다. 高句麗에 있어서 이처럼 佛敎가 急速히 發展 된데는 當時 高句麗人의 卓越한 精神的 素養과 優秀한 工藝技術에 힘입은바 컸을 것으로 생각 된다. 비록 數는 적지마는 高句麗 初期의 作品으로 알려진것 中에 六朝의 工藝美術에 못지 않게 優秀한 것들이 있는것으로 보아 高句麗는 그 初期에 넉넉히 그만한 光背와 佛像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므로 問題는 如前히 兩者의 關係 如何에 있다. 同 光背가 틀림 없이 本像의 光背라면 高句麗 初期의 佛像은 東晋系에 屬하는 것이며 지금 까지 北魏系 樣式으로만 알아오던 가늘고 긴 허리를 가진 半跏像들은 東晋系樣式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의 重要한 新知見을 提供하는것이 될것이다.

三國遺事에 『阿道來自晋 明年 乙亥二月 創 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弗蘭寺 以置阿道 此高句麗佛法之始 僧傳作二道來自魏云者 誤矣 實自前秦而來』(11) 라고 있어 옛날부터 우리나라 佛敎가 北魏系인것으로 잘못 알아 오던 것을 一然이 東晋系의 것으로 바로 잡아 놓은것 처럼 이 東晋紀年銘의 半跏像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지금 까지 우리나라 初期佛像의 系統을 北魏系로만 알아 오던 것을 東晋系로 바꾸어 놓게 될른지도 알 수 없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까지 北魏系로만 알아 오던 金氏藏 辛卯銘 金銅三尊佛의 光背와 全鎣卿氏藏 癸未銘 金銅三尊佛의 光背는 永康七年銘 光背의 出現으로 말미암아 北魏系 보다 東晋系에 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것들이 모두 永康七年銘 光背와 相似하기 때문이다. 高句麗 瓦當의 紋樣이 北魏式 보다 東晋式에 가까운것과 아울러 매우 注目 할만한 事實이다. 이처럼 高句麗 金銅三尊佛과 百濟 金銅三尊佛의 光背가 東晋系라면 東晋紀年銘의 光背가 高句麗 半跏像의 光背가 되었다 하여 조금도 어색할 것이 없다. 同 光背가 確實히 本像의 光背라면 本像은 韓國 佛敎史上에 있어서만 아니라 東洋 佛敎史上에 있어 一新紀元을 劃하는 重要資料가 될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 되는 것은 高句麗가 그 初期에 中國의 年號를 使用한 如否에 對한 것이다. 그러나 高句麗는 故國原王 二十五年(355)에 前燕으로 부터

(11)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第三

册封된바 있었고 同王 四十年(370)에 前燕이 前秦에게 亡하자 高句麗는 다시 前秦과 더부러 通好 하였으며 小獸林王 二年(372) 前秦으로 부터 佛敎를 받은 이후에는 더욱 親交를 두터히 하였다.

廣開土王 三年(394) 前秦이 亡한 이후에는 高句麗는 恒常 燕과 더부러 싸우고 있었으므로 때로는 後秦 或은 西秦과 더부러 親交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長壽王 五年 即 西紀 417年에 後秦이 劉裕에게 敗亡된 이후에는 西秦만이 남았으므로 高句麗는 西秦과의 通好를 더욱 긴밀히 하였을것이니 同王 六年 造像에 즈음하여 高句麗 佛敎의 源流地인 秦의 年代를 使用하는 일쯤은 있을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 된다.

同 遺跡 出土의 다른 한 重要한 資料로서 金銅天人像金具가 있다. 揷圖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天人像의 衣紋은 半跏像의 衣紋과는 달리 좀더 寫實的이며 流線形으로 길게 주름잡힌 裳衣가 腰帶와 함께 左右로 均齊하고 힘있게 뻐쳐 있어 마치 平南 平原郡 德山面 元五里 廢寺址 出土 泥佛의 衣紋과 金氏藏 辛卯銘三尊佛의 衣紋과 彷彿하다. 同 金具의 下部의 蓮花座의 蓮瓣도 泥佛의 그것과 흡사하여 그것들과 同時代 製作으로 보여 진다. 泥佛은 대개 6世紀 前半에 製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揷圖 II. 平壤 平川里 出土 金銅天人像金具

이렇게 보면 同 遺蹟에서 出土된 遺物中에는 大晋元康(291~299)銘의 樂浪瓦當, 永康七年(418) 銘의 光背, 高句麗瓦當, 金銅天人像 金具 等의 年代가 確實한 것들이 있어 그것들을 一括遺物로 보는 때에는 本像의 年代의 上限은 三世紀末로, 下限은 6世紀半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像과 가장 깊은 關係가 있는 光背가 있는 限 그 光背의 紀年은 本像의 年代考定에 있어 가장 優先的으로 利用 되어야 할 것이다. 本像이 三世紀末의 瓦當과 함께 出土 되었다하여 本像의 年代를 그 年代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本像이 6世紀半頃의 遺物과 함께 出土되었다 하여 本像의 年代를 반드시 6世紀로 내려 노아야 한 必要는 없다. 廣開土王 二年(393)에 創建된 平壤 九寺中의 一寺로 推想되는 平川里 所在 佛寺가 6世紀半 이후 어떤때에 不意의 변을 당하여 寺中에 있던 오래고 새로운 物件들이 한가지로 地下에 埋沒 되었을 수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同 遺跡에서 出土 되는 遺物들의 年代는 그 新舊의 別을 따라 각각 달라질 것이다.

2. 造像樣式 및 그 手法에 依한 年代考定

나 自身이 同 光背와 台座를 實見하지 않고서는 또한 實見 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本像과 하나 하나 맞추어 보지 않고서는 同 光背의 紀年을 本像의 絕對年代로 斷定키는 困難하다. 아무리 博物館長의 證言이라 할지라도 그이 亦是 그것들과 本像과를 한자리에 놓고 調査한것은 아님으로 相對的인 信을 두는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筆者는 萬一을 염려하여 本像을 單獨遺物과 같이 생각하고 다만 그 造像樣式 및 手法에 依하여 그 年代를 考定해 보고자 한다.

于先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半跏思惟像의 最古年代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問題다. 現存 最古 半跏思惟像으로서는 太平眞君三年(442) (13) 像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半跏像의 造成은 4世紀末이나 그 以前에 即 兩普時代에 있었을 可能性이 充分하다. 그러므로 本像이 半跏像인 때문에 年代가 낮아져야 할 理由는 아무것도 없다.

本像의 造像樣式에 있어 가장 重要한것 中의 하나는 衣紋이다. 佛像의 裳衣의 衣紋에 있어 本像의 衣紋과 같은 褶襞式의 衣端處理法이 使用된 現存 最古 佛像으로는 建武四年(336) 金銅佛座像과 京都 藤井

(12) 揷圖 II. 參照
(13) 揷圖 III. 參照

插圖 III. 天平眞君三年半跏像

有隣舘藏 兩晋時代 金銅佛立像과 윈즈를 콜렉슌 兩晋時代 金銅佛座像(14) 等이 있다. 現存 佛像들의 衣紋을 根據로 한다면 四世紀初 부터 간단한 褶襞式 衣端處理法이 使用되기 始作하여 雲岡 龍門石窟時代, 即 6世紀初에 와서는 그것이 定式化된듯 하다. 그런데 本像의 衣紋의 褶襞은 雲岡 龍門石佛의 그것과 비슷 하면서도 좀더 簡素하고 古拙한 맛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보다 若干 앞서는것 같다. 6世紀初에 褶襞式 衣端處理法이 定式化 되었다 할지라도 그 定式化되는 過程은 적지 않게 긴 期間이었겠으므로 앞으로 本像의 衣紋과 같은 衣紋을 가진 5世紀頃의 金銅像이 出現될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 本像의 比較的 豊滿한 面相이라든지, 가늘고 길게 빠진 가슴과 허리라든지는 지금까지의 知識으로 判斷한다면 北魏式에 屬하는 樣式이다. 그런데 北魏가 北中國을 統一한 후에 平城(大同)을 首府로 하여 建國한것은 西紀 398年으로서, 建國과 함께 詔를 내려 佛敎를 推奬하고 寺塔을 지으며 佛像을 造式하였다. 그러므로 이 所謂 北魏式 面相과 몸집이 나타난 것은 4世紀 末에서 5世紀 初가 되지 아니할가 생각 된다. 이렇게 볼 때에 本像과 같은 北魏系이면서도 高句麗的 手法을 確實히 나타내는 佛像의 年代는 그보다 훨신 떠러졌을 것으로 생각 하기 쉽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當時의 高句麗人의 工藝技術은 外來 文化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곧 自己 手法으로 處理 할 만큼 優秀하였으므로 本像을 北魏系에 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本像의 製作年代는 5世紀半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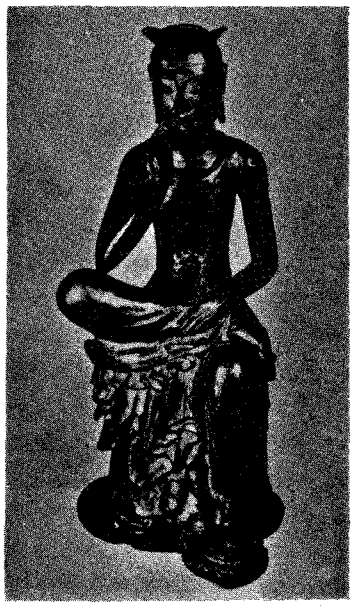
本像 台座의 垂蓮花瓣의 樣式에 있어서도 그것이 平原郡 德山面 廢寺址 出土의 泥佛의 台座의 그것과 흡사 하지 만은 泥像의 衣紋이 本像의 그것 보다 훨신 發展된 樣相을 보이고 있음이 確實하므로 本像의 年代는 泥像의 그것보다 앞서야 된다. 梅原博士는 그의 論文에서 『本像은 크기에서는 틀리지마는 從來 알려진 南韓에서의 同種의 金銅像中에서 가장 著名한 德壽宮美術舘所藏의 半跏像과 매우 近似하고, 또한 돌과 銅의 틀림은 있으나 慶州 博物舘에 保存 되어 있는 頭部를 缺한 石製半跏像과도 同形임이 認定 된다.……또한 日本 大和中宮寺의 木彫의 尊像과도 같은 점이 있는것이 認定 된다』(15) 고 指摘하고 다시 『本像은 南韓 初期의 佛像의 一樣相을 具象한 事實이 알려 진다』(16) 고 말 하여 은연중 本像은 南韓 初期의 半跏像들과 日本 初期의 그것들의 原型이 됨을 示唆한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의 論文의 結論에서 『이 點에서(中國 六朝初半의 光背가 同 遺跡에서 出土된것…筆者註) 半跏思惟像과 아울러 아직 遺例가 드문 高句麗 初期의 佛敎 文物을

插圖 IV. 윈즈를 콜렉슌 兩晋時代 金銅佛座像

(14) 插圖 IV 參照
(15) 梅原 同上書 P. 54
(16) 梅原 同上書 P. 56
(17) 梅原 同上書 P. 57

揷圖 V. 德壽宮美術館藏
方形臺半跏像

考察하는데 새로운 物的 資料가 되는 바다』(17) 라고 말 하여 本像의 高句麗 初期의 作品됨을 示唆 했고, 다시 英文 Summary 에서는 『The writer cheeeked up Mr. Kim's report on excavation and other materials, arriving at the Conclusion that this im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of Buddhism in the early period of Goguryе』(18) (筆者는 佛像發掘의 經緯와 諸他 資料에 對한 金氏의 報告를 參照하여 本像은 高句麗 初期에 있어 가장 重要한 佛教資料 中의 하나라는 結論에 到達하였다) 라고 말 하여 本像의 高句麗 初期의 作品임을 斷定하여 말했다. 從來의 日本人 學者들의 年代觀에 依하면 三國時代 高句麗 初期는 4 世紀에서 5 世紀 까지에 該當된다. 그는 永康七年銘의 光背를 本像의 光背로 認定하지는 않으면서도 本像의 年代가 光背의 年代보다 그렇게 동떠러진것이 아님을 確認하였다. 어데로 보든지 本像은 南韓에서 發見된 半跏像들의 原型이 됨에 틀림 없으며, 그 手法에 있어서도 本像은 素朴 重厚 하면서도 權衡美를 가춘 高句麗的 特徵을 가졌음에 反하여 德壽宮美術館藏 彌勒菩薩半跏像이나 方形臺半跏像이나는 그 暢達 秀麗한 手法이 어디 까지나 羅濟的 特徵을 간직하고 있어 本像과의 年代差를 잘 말해 주고 있다. 德壽宮美術館藏 方形臺思惟半跏像(19)과 小形 金銅彌勒菩薩半跏像의 年代를 5世紀末에서 6世紀前半으로 본다면 本像의 年代는 5世紀前半으로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本像이 德壽宮美術館 彌勒半跏像(20)과 近似하나 하여, 또는 지금까지 그런 早期 年代의 高句麗 佛像이 發見 된 일이 없다 하여 本像의 年代를 6世紀로 보는 것과 같은 見解는 當然히 是正 되어야 할 것이다.



揷圖 VI. 德壽宮美術館藏
彌勒菩薩半跏像

마지막으로 北韓 平壤에서의 半跏像의 다른 한 出土例를 附記해 둔다. 1934年 筆者는 平壤에서 美國 北長老 宣教師이며 崇實大學의 學長인 馬布三悅博士에게서 頭部를 缺한 一尺五寸大의 石製半跏像 一軀를 양도 받아 所藏한바 있었는데 上半身은 裸體로 되어 있었으며 褶襞진 衣紋이라든지 蓮花臺라든지가 本像과 흡사한 것이었다.

以上에 言及된바와 같이 本像과 同光背가 直接的인 關係를 가진것이라면 本像의 造成年代는 光背의 紀年이 明示 하는 대로 長壽王 六年 即 西紀 418年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本像은 그 樣式과 手法 그리고 그 銹化 및 磨滅의 程度가 보여 주는대로 우리 나라 初期 半跏像들의 原型이 됨이 確實 하며 그 造成年代가 5 世紀半을 내리지 않음이 確實하다. 하루 速히 南北韓이 統一 되어 實物들을 한 자리에 놓고 調査 研究해 볼 수 있는 機會가 오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18) 朝鮮學報 第 31輯 Summaries p. 3
(19) 揷圖 V 參照
(20) 揷圖 VI 參照